

작품 내용

제 목	낯선 이름
내 용	차가운 새벽 공기. 나는 오늘도 촛불 불빛에만 의지한 채 시선은 하얗고 깨끗한 종이 위를 향하고 나의 손은 먹물을 머금은 만년필을 쥔 채 한 줄 한 줄 이야기를 채워갑니다. 시야는 점점 어두워지지만 나는 잠을 떨쳐내며 한 줄이라도 더 적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공기만 맴돌던 방은 작품 하나를 끝낸 뒤에야 비로소 따뜻해져 갑니다. 그제야 종이를 물들이던 펜을 놓아두고 나는 몇 날 며칠의 노력이 스며든 작품을 바라봅니다. 카페인으로 잠을 죽여서라도 썼던 글. 나의 뺨을 때려가며 썼던 글. 그렇게 지켜낸 글. 긴장이 풀리며 그동안 참은 피로가 몰려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나의 글은 사라졌습니다.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름 아래 내 문장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쓴 것은 나였지만 박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장은 있었지만 내 이름은 그곳에 없었습니다.